

차베스 집권 10년: 개혁과 결점*

스티브 엘너**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은 이미 십년을 집권하였고, 또 다른 십년을 막 시작하고 있다. 보다 책임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정부 업적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베스 정부 실적에 대한 잘잘못의 평가는 차베스주의 반대자들이나 지지자들 모두의 관심사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의 석유지대추구 의존론, 즉 베네수엘라 경제사회는 완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대추구에 여전히 토대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 주요 관심사이다(López Maya, 2008: 7; Coronil, 2008; Kelly and Palma, 2004: 229-230; Lombardi, 2003: 5-6). 이 주장의 논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경제발전은 석유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만약 국제 석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지난 10년간의 모든 개선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명제를 점검하기 위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려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온정주의와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이 차베스 정부정책의 길잡이였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검토하겠다. 좌파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와는 달리, 차베스 정부의 10년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충분할 것이라던 전제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집권 10년의 차베스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 이 논문은 원래 *Latin American Perspectives*(January 2010, Vol. 37, No.1)에 “Hugo Chávez’s First Decade in Office: Breakthroughs and Shortcomings”란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http://venezuelanalysis.com/analysis/5301>.

** 스티브 엘너(Steve Ellner) 교수는 푸에르토리코의 오리엔테 대학교(Universidad de Oriente)에서 1977년 이래 경제사를 가르치고 있다. *Latin American Perspectives*의 외부 편집인이며, 다수의 저서를 내었다. *Rethinking Venezuelan Politics: Class, Conflict and the Chávez Phenomenon* (2008); *Neoliberalismo y Anti-Neoliberalismo en América Latina* (2006); *Venezuela: Hugo Chávez and the Decline of an “Exceptional” Democracy*, coedited with Miguel Tinker Salas (2007); 그리고 *Venezuelan Politics in the Chávez Era: Class, Polarization, and Conflict*, coedited with Daniel Hellinger (2003).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쟁들이 보여 준 모든 차원에서의 약점들을 극복해 보려한다. 정부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여주려는 이 경험적 연구는 차베스 통치가 복잡하다는 것을 불가피하게 제안하고 있다. 정부 성과에 대한 이 양면적 평가는 결국 반대론자의 악평이나 정부의 공식적 홍보에 나타난 무비판적 장밋빛 찬사도 모두 반박하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친/반 차베스주의적 정치분석가들뿐만 아니라 차베스주의 진영내의 주요 분파들 간의 논쟁도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차베스 반대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공통적 실수는 보다 폭넓게 차베스정부의 실적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결점에 기인한다. 이 결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다. 첫째 결점은 정부정책(행위)들 간의 상호효과와 일반 대중부문에 대한 불균등한 영향을 간과한 점이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친차베스주의 분석은 정부정책과 담화가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비록 의도적으로 중산층과 상위계층의 이해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둘째 결점은 같은 구체적 결과물을 가지고서도 분석자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과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모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치체제는 형편없이 작동하고 있지만, 루소식의 급진민주주의 모델에 따르면, 완전히 반대의 결론이 나오고 있다.

차베스 반대론자나 차베스주의자들이 다 같이 차베스 정부의 특정 업적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실수나 자신들의 편파적인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결점은 여러 평가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예, 즉 반차베스주의 정치지도자, 반차베스주의 학자 그리고 차베스주의 지지자들의 평가만 들어도 그 오류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페뜨코프(Teodoro Petkoff)는 비교적 덜 교조적인 반차베스 지도자이고, 최근 정치발전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펴냈는데, 차베스를 평가하기를, 빈곤 문제를 대중적 관심사로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즉, 빈곤 문제의 쟁점화는 차베스가 대통령으로서 성취한 주요 업적 내지는 유일한 업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페뜨코프의 논의는 사회부문에서 차베스 정부가 성취한 실질적 혁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예를 들면, Frontline, 2008; Ellner, 2008: 135 - 36 참조). 구체적 변화 자체 보다는 일의 추진 행태나 논리만 보고 판단하는 이러한 편견은

차베스 현상의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평가의 대표적 오류이다.

둘째, 경험적 연구이지만 특정 모델에 얽매어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예는 까스파네다와 모랄레스가 편집한 『시대 착오적 유물들』(Leftovers, Verso, 2008)이다. 이 책의 저자들 대부분은 급진적 민중주의(radical populism) 모델을¹⁾ 비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차베스 정부와 같은 정치체제는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 기회주의적, 낭비적, 그리고 번지르르한 수사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이 책 저자들은 급진적 민중주의의 부정적 특징 이외의 업적, 사회적 참여나 소외 해소 같은 업적을 보지 못했다(Ellner, n.d.).

셋째, 차베스 정부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장애 요인으로 차베스주의 진영내의 서로 다른 모델과 이에 따른 다양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우선전략(social-prioritization strategy), 즉 사회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경제적 목표보다 사회적 목표를 더 강조하는 전략은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제체제의 생존력을 확보하려는 실용정책결정접근(pragmatic-decision-making approach)과는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보다 급진적인 사회우선전략파들은 대중의 에너지를 대중 동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동력화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과정에 절제된 제한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실용정책결정 접근파들은 국가의 제도적 완비를 중요시하고 있다(Ellner, 2008: Chaps. 6 and 7).

차베스 자신은 물론, 차베스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차베스 정부에 호의적인 분석가들은 종종 경제적 목표보다 사회 문화적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다(Bowman and Stone, 2006: 22; Piñeiro Harnecker, 2009: 333-337 참조). 예를 들면, 차베스의 헌법개정안(2007년 투표에서 부결되었다)은,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려 하였던 것에서 보듯이, 사회 문화적 목표를 경제적 목표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사회우선전략의 지지자들은 국영기업의 생산력을 해치는 실제적 요소들을 외면한 채,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를 옹호하고 있다. 우선순위의 갈등에서 보듯이, 친좌파 연구자들도 목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²⁾

1) 대중주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 사회학자 Gino Germani의 저작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페론과 무솔리니를 비교하였는데, 1934년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기 전에 무솔리니 정부에 의해 구속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우선순위와 요구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독특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차베스 정부의 업적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는 베네수엘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차베스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에서 이룬 구체적 결과물을 살펴보겠다. 대중부문 중에서 정부정책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이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목표들이 갖고 있는 상이성이나 갈등을 모두 점검함으로써, 이 논문은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정부의 실적을 평가하겠다.

I. 정치적 부문

차베스가 추구한 정치체제를 평가하는데 있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며,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중앙집권주의를 경고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급진민주주의로, 정책결정에 있어 다수결 원리와 국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하고 있다(직접 민주주의에 방해가 될 경우 대의제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베스주의자들은 급진민주주의를, 또는 자칭 “참여 민주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국내의 차베스주의 반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신조를 평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지표로 평가하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결점이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 내지 초당파적 직위여야 할 주요 자리에 누가 보아도 분명한 차베스주의자들이 임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법무장관, 감사원장, 국가선거위원회의 다수 위원 등이다. 이로 인해 권력견제 제도에 큰 결함이 생긴 것이다. 둘째, 1999년 헌법은 새로운 권한을 중앙 행정부에 부여하여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군 장교 진급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 셋째, 공공행정의 정치적 중립이 차베스 정부 하에서 공개적으로 부정되었다. 1998년 이전 수십 년간에도 공공행정의 정치적 중립은

2) 모든 혁명 운동은 상충하는 목표들 때문에 분열되는데, 차베스주의 운동의 경우 유독 명백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차베스주의의 공식담론인 “21세기 사회주의” 개념도 알다시피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많은 차베스주의자들이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불평등이 과거 소련이나 기타 혁명 정부들이 사회주의 초기 시대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였지만, 지켜야 원칙으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정부의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단체 명의로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동원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민주주의론자들은 행정부에 의한 선거주도를(경멸적으로 “국민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라 부르고 있음) 비판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반대파의 참여 없이 대통령이 선거의 주제를 정하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차베스가 바로 행정부에 의한 선거주도의 대표적인 경우라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차베스는 대통령 취임 직후 두 번, 2007년 및 2009년 각 한 번씩 국민투표를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정부는 삼자위원회 —이전 정부들에서 노동, 경영 등 이익단체들이 정부 정책투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직—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집단들이 일반 구성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Márquez, 2007: 85-86).

급진민주주의 지표로 평가한다면, 차베스의 정치체제는 훨씬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논리에 의하면, 급진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지배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인구 중에서 일반국민 부문의 참여를 우선시 한다. 급진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대중 동원이며, 이를 통해 이전에 소외된 대중들이 정치권에 포용되고, 권력을 갖게 되며, 또한 ‘정치적 학습’까지 하게 된다 — 이 요소들은 측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관적 요소들이다. 차베스 집권 하에서, 이 분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반면에, 이 새로운 급진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필수적인 다른 세 가지 요소, 즉 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비판을 수렴하는 제도, 조직의 유대 강화, 대중 참여를 상설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 등에서는 별 진전이 없다. 이러한 참여 민주주의 목표들을 실현하는데 있어 성과와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보겠다.

다수지배의 원칙을 강조한 체제는 선거에 자주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10년의 집권동안, 차베스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빈번하게 선거를 치렀다. 이 선거들은 여러 국제 선거감시단의 참관과 국제적 언론매체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차베스주의자들은 이들 선거에서 1958년 이후 가장 높은 표 차이로, 그리고 1990년대보다는 대체로 낮은 기권을 하에서 승리하였다. 여기에는 1999년 두 차례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2004년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2007년 헌법 69조 개정 국민투표, 2009년 개헌 국민투표 등의

선거를 포함하고 있다. 차베스 정부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제는 직접 또는 참여 민주주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선거에 앞서 국민서명운동이 있었고(2004년 국민소환투표에서 보는 것처럼), 또한 후보자가 아니라 특정 제안을 선거를 통해 결정한 점이다. 예를 들면, 1999년, 2007년 및 2009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전국적 토론은 일부 정치 엘리트만이 아닌 모든 유권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차베스주의 반대파들은 토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비판하였지만, 이 대중차원의 토론들은 대체로 베네수엘라 역사상 전대미문이었다(García Guadilla, 2003: 186-187).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과정에 정부의 공공연한 탄압은 없었다.³⁾ 그러나, 차베스주의 반대파들이 차베스 대통령의 모든 개헌 추진에 대해서 거부하였고, 또한 중요한 시기에 폭력이 발생하여 차베스 정부의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훼손되었다. 물론, 급진적 반대로 인해 촉발된 폭력도 있었다.

급진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동원이다. 특히, 동원이 대중들의 권력 강화와 정치적 학습으로 연결되어 조직성장을 가져올 경우이다. 대규모 시민들이 차베스 집권 10년 내내 각종 집회와 행진에 참여함으로써 베네수엘라 역사상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대규모 대중 동원이 있었던 셈이다. 실로, 2001년 말부터 시작된 반차베스의 공격적 거리시위 앞에서도 차베스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그의 동원 능력이었다. 차베스가 동원한 군중은 처음에는 수적으로 반대 진영의 동원 규모와 비슷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도하였다.

가장 중요한 동원으로는, 2002년 4월 11일 쿠데타 직후 대통령궁 및 군기지를 에워싼 수십만의 군중이 차베스 대통령의 복귀를 가능케 한 사건이다. 그날의 거리 동원은 전반적으로 자발적이었던 것인데 반해, 1998년 이후 여러 차례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군중들은 차베스 지지자의 조직에 의해 주로 동원되었다. 아래로부터 참여 노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선거조직으로는 2004년 8월 대통령 국민소환에 대항하여 조직된 선거투쟁단(Unidades de Batalla Electoral), 2006년 12월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결성된 ‘대대들’, ‘소대들’,

3) 지면이 부족하므로 이 논문은 정부가 시민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다루지 않으려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런 주장이 과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또한, 이런 주장은 차베스 정부가 권위주의 체제로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입증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비행대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새로이 결성된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artido Socialista Unitario de Venezuela, PSUV)이 2007년 12월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그리고 2008년 11월 주·시 지방선거에서 차베스주의 후보의 선거유세를 위해 조직한 ‘사회주의 대대들’도 있었다. 2009년, PSUV의 ‘대대들’은 20~30명 단위의 작은 규모인 ‘정찰대’로 대체되었다.

PSUV는 원래 정부 관료조직을 대체하고, 전신인 제5공화국운동(Movimiento Quinta República, MVR)의 단점인 차베스주의 평당원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되었는데, 대중 참여도 강력하였다. 2007년 전반기에 570만 차베스주의자들이 PSUV에 당원으로 등록하였다. 이 숫자는 한해 전 대선에서 차베스가 얻은 표의 약75%에 해당하였다. 평당원의 권한 강화와 동시에 불만해소의 표시로, PSUV는 당의 지방 지도자(‘대변인’)를 뽑는 선거에 정부 관리와 이미 당의 직위를 맡고 있는 차베스주의자는 제외하였으며, 이는 차베스가 요청한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부응이기도 하였다. 2008년 6월, 약 250만 PSUV 당원들은 당의 주지사 및 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야당의 지명식 후보선출 방식과 대조를 이루었다.

차베스 정부 하에서 대중동원은 과거 수십 년간 대체로 소외되었던 대중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차베스주의 정치적 전략과 차베스의 담화에 나타나 있는 대중 동원의 핵심 역할은 정책결정에 있어 일반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1999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수차례의 정치적 승리도 차베스주의 운동에 참여한 평당원들의 권한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2002년 4월 쿠데타 당시 거리로 나온 차베스주의자들은 차베스의 복귀를 자신들의 작품으로 자부하였다. MVR의 ‘정치계급’은 쿠데타가 일어나자 도망갔지만, 거리의 차베스주의자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쿠데타를 반대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더욱이, 2004년 8월 대통령 소환 선거를 시작으로 이후 일련의 선거에서 승리하자, 차베스주의 평당원들은 자신들이 정책결정권을, 특히 당의 후보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차베스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소외계층의 권한강화에 기여하였다. 차베스 정부는 다수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고용기회 확대와 같은 여러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사업은 질보다 양을 우선시한 정부정책(아래에서의 설명 참조) 기초아래 이루어졌다. 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된 차베스 정부 초기의 여러 협동조합과 공동체위원회는 일종의 온정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상당수가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성공한 단체들은 국가기관과 협상에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높일 수 있게 법적 및 행정적 조치들을 잘 정비하였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대출이나 기부금 신청 및 계약서 작성 등의 경험을 통해, 협동조합원과 공동체위원회 위원들은 학습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여 주었다(López Maya, 2007; Piñero Harnecker, 2007: 30-31; Ellner, 2007; 2009).

이러한 동원과 권한강화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전반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여론조사 기관 라피노바로메트로(Latinobarómetro)의 최근 연간 조사보고서를 보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호감도 면에서 베네수엘라는 남미 대륙 평균보다 크게 웃도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남미대륙의 평균은 58%이고, 베네수엘라는 이보다 12%나 높다. 2002년 4월 쿠데타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특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친차베스 세력이나 반대세력 모두 민주주의 복구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Santiso, 2006: 105 - 106).

그러나 동원과 권한이양이 조직발전과 공식적인 내부 토론을 활성화하지는 못하였다. 대중의 조직화와 내적 토론 활성화는 토론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적 요소이다. 볼리바르서클(Círculos Bolivarianos)과 같은 사회 조직들은 그 구성원들이 국가 지원의 사회 프로그램이나 차베스주의 선거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탈퇴함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국가 재원이 차베스주의 정당원을 붙들어놓는 유일한 방편은 물론 아니었지만, 조직의 유동성은 정책결정에 있어 대중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일반 차베스주의자들은 대체로 정당과 선출직 지도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직이 안정되지 않거나 내부 토론의 활성화가 없으면 일반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차베스주의 운동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공고화가 결여되어 있는 점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친차베스주의 노동조직인 전국노동자연합(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UNT)은 2002~2003년 총파업 이후, 당시까지 최대 노동 단체인 베네수엘라노동자연맹(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Venezuela, CTV)이 불신임 당하자, 대체조직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파 간 갈등으로 연맹 지도부 선거가 늦어졌으며,

조직의 구조적 유대도 공고화되기 어려웠다(Ellner, 2008: 157 - 158). UNT 내에는 정부로부터 노동조직의 완전한 자율성을 주장한 올란도 치리노(Orlando Chirino)를 중심으로 한 트로츠키파와 정부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분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내부 토론이 너무나 격렬하여 당시 UNT의 안소아떼기주(Anzoátegui) 지부장이 “우리 회의가 너무 소란스러워,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분파적 충성심은 회의장 문 앞에 남겨두고 들어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Luis Serrano, interview, Barcelona, Venezuela, December 18, 2007). 격렬한 노동쟁의로 인해 철강회사 SIDOR(Siderúrgica de Orinoco)가 국유화된 데 자극받아, UNT가 지원한 2008년 노동절 가두시위에선 평조합원들이 차베스주의 노동운동의 단결을 원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2007년 12월 대통령 임기제한 철폐 개헌 국민투표에서 정부가 패배할 때까지, 차베스주의 운동은 내부 토론과 자아비판을 줄곧 회피하였다. 친차베스 언론기관이 방영한 각종 토론회와 회의(예를 들면, PSUV가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회주의 대대 단위의 회합들)에서 국민투표의 실패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제기되었다(Guillermo García Ponce, interview, Caracas, January 24, 2008). 하나는 차베스주의자들의 과신과 소통 실패를 포함한 전술적 오류였다. 이 주장은 차베스 자신이 제시하였고 일부 차베스주의자들이 동조한 것으로, 물론 반대파들의 정보왜곡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상당기간 동안에 저질러진 정부의 정책 및 전략적 오류,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선거직 관리들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실패한 점이다. 이 입장은 국민투표 패배를 보다 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 계층의 차베스주의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었다. 예를 들면, 솔직하기로 소문난 따치라 주의 국회의원 따스콘(Luis Tascón)이나 차베스주의 운동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하인츠 디테리히(Heinz Dieterich)와 같은 지식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는 지적하기를, 차베스주의 운동의 미온적 지지자들이나 부패를 저지른 자들은 이 운동이 급진화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비밀리에 개헌 반대를 위해 공작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0년 초에 차베스는 입장을 바꾸어 차베스주의 운동 내부에서 공개적 토론을 장려하였으며, 집권 후 처음으로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동력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간략히 말해, 1999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토론 민주주의를 향한 부분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의 성숙을 위한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전대미문의 대규모 베네수엘라인들이 지속적으로 동원에 참여하였고, 소외계층이 정책결정에 권한을 강화하였고, 또한 이로 인한 주권자로서의 자부심 등은 새로운, 보다 포용적 정치체제를 위한 중요한 성과들이다. 2007년 국민투표 패배로 촉발된 차베스주의 내부의 비판적 토론은 집권자들의 관료화와 부패를 제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차베스 대통령의 전방위적 역할과 차베스주의자들의 눈치작전 경향은 진영 내부의 토론을 위축시켰고, 성숙된 정책결정 과정을 만드는 데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차베스주의자들의 이탈 현상은 —예를 들면, 2000년 까르데나스(Francisco Arias Cárdenas, 차베스와 1992년 쿠데타 주동)가 주도한 반체제 인사들, 2001~2002년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MAS)과 미킬레나(Luis Miquilena, 공산당 지도자) 그리고 2007년 포데모스 당(Podemos Party)과 Raúl Baduel 장군) 등— 명실상부한 내적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방해하였다.

국가 정치체제를 변혁하려는 과정에 차베스주의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조직의 견고화와 제도화이다. 제도화를 위한 방편들이 최근에 도입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실험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실용정책결정접근에 맞추어). 예를 들면, 차베스 정부는 초기에 대규모의 협동조합원들에게 확실한 보증 없이 창업 자본을 대출하였는데, 이것이 실패하자, 정부는 전국 2만여 공동체위원회에 대한 신규대출과 배당금 조건을 엄격히 하였다. 그렇지만 중앙, 주 및 시 차원의 감시관과 공동체 차원의 임시적 ‘사회적 감시관 간의 관계에 (그리고 후자가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제도적 감시가 아직 결여되어 있다.

또 다른 순조로운 조직발전으로는 PSUV가 당내 평당원과 지도자 간에 연결 장치를 확립한 점을 들 수 있다. PSUV의 사회주의 대대들은 2008년 11월 지방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당후보자 선출에 있어 PSUV는 예비 선거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야당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 대대들이 4개월 뒤에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에서는 이전 보다 덜 적극적으로 임했다. 반면에,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다른 국가적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제도화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린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될

수 있다. 한 가지 장애물은 차베스주의 운동 내의 전략간 차이이다. 사회우선모델의 지지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규모 인원 동원과 참여를 중요시했지만, 국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간섭하는 것은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간섭은 대중의 열정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정책결정집근파들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식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도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 외에도, 차베스주의 운동가들이 정당 지도자와 국영부문 전문직 종사자들을(경멸적으로 “기술관료들”이라 불렀다) 불신하였는데, 이는 조직과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불신 태도는 사회우선모델 지지자들의 사고에 잘 나타나 있다. 더욱이, 잦은 장관급 인사들의 교체와 이들의 경험부족은 공공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불확실한 게임규칙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도화를 낳았다. 특히, 근본적인 구조적 변동을 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제도화를 어렵게 하였다.

차베스주의를 제도화하는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역사적 그리고 이론적 접근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차베스 현상은 1960년대 쿠바 혁명이나 중국의 문화혁명과도 유사한 발전단계를 걷고 있다. ‘강성 급진주의’, 자발주의, 그리고 기존 행정 관료들에 대한 불신과 숙정이 맹위를 떨친 점, 또한 제도화를 가로막는 임시변통적 조직을 양산한 점 등이 서로 유사하다. 정부가 법적 및 행정적 제약을 피하고 일반 대중적 동원에 직접 호소하는 것은 종종 내외부의 무서운 적대세력에 대해 위협을 느낀 데 기인한다(실제적 위협인 경우도 많다). 둘째,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정당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법적 제도의 출현을 예고한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찰이 차베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실로, 차베스의 카리스마적 자질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 체제의 발전을 저해하여 제도화에 불리하게 적용하였다. 더욱이,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서 전방위적 역할과 차베스주의 운동은 집단적 지도력과 지도력 경쟁의 출현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조직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결점들은 PSUV의 내적 토론을 장려하는 건강한 경쟁을 사리지게 하고 있다. 또한, 정당이 차베스주의 일반 지지자와 사회운동 요구를 집약하여 국가 통치기관에 전달하고 또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하는 쌍방향 연결고리로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II. 경제적 부문

차베스 정부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이들 목표는,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1958년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정치 지도자들이 추구해온 것들이다. 첫째로 명시된 목표는 미국 석유시장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교역관계를 다양화하는 것이다(Últimas Noticias, September 11, 2007, p. 21). 둘째, 앞의 목표와 관련되지만, 국가 '주권'의 확립이다.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베네수엘라의 독립적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새로운 경제세력에 경쟁기회를 부여하여 소수에 의한 경제의 독과점적 지배를 막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차베스 정부는 국내의 경제부문에 대담한 조치들을 취해왔으며, 일종의 경제 민족주의를 표방하였다. 차베스 정부의 경제업적 평가는 이 세 가지 목표에 어떠한 진전이 있으며 또한 정책적 오류와 경제단체들의 저항 등으로 인한 난관과 결점들을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7년 소위, 오리노코 유전지대(Orinoco Oil Belt)의 국유화는 차베스 정부의 처음 두 가지 목표, 대미국 석유 의존 탈피와 독립적 경제주권 확립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오리노코 유전지대의 중질유(重質油) 개발과 정유에 있어 부차적 사업자로 참여하던 국영석유회사, *Petróleos de Venezuela (PDVSA)*에 최소 60%의 지분을 부여해 핵심 사업자로 만든 것이다. 또한, 기존 오리노코 석유개발업체의 종업원들을 PDVSA 직원으로 전환시켰다. 이 조치의 영향은 양면적이었다. 부정적 결과로, 주요 개발업체의 일부였던 엑슨(*Exxon*)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소유권 축소에 반발하여 철수하였다. 국유화된 업체들이 PDVSA의 임금체계에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숙련기술자들도 크게 이탈하였다. PDVSA의 당시 임금수준은 과거의 수준보다 또한 참여 다국적기업보다 낮았다.⁴⁾ 그러나 주요 다국적기업 쉘브론 텍사코(*Chevron Texaco*)는 다른 다국적기업과 함께 국유화 조치를 받아드렸으며, 역할 확대를 협상하였다.

오리노코 유전지대 개발에 있어 참여 외국기업의 다양화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국유화 계획을 실시하기 직전에, PDVSA는 오리노코 지역의 27광구를

4) 석유공사의 상대적 저임금 체계는 과거 석유산업 피고용인들이 기술관료적 엘리트로 인식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의 기업에, 대부분이 국영기업에 참여기회를 제시하였다. 중국,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적으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부족국인 중국과 같은 나라가 오리노코 지역 개발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조치를 부정적으로 받아드렸다.

차베스는 여러 번의 해외순방 등을 통해 적극적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베네수엘라가 자본, 기술, 및 교역의 다원화하는데 공헌하였다. 차베스 재임 시,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원유수출은 급속히 신장하여 2008년 하루 35만 배럴을 넘었다. 그 외에도, 차베스 정부는 카리브해석유공동체(PetroCaribe, 2007년 현재 자메이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아이티 등이 포함)를 결성하여 시장가격의 40% 가격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공급하였다.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서부지역과 콜롬비아를 잇는 가스관, 쿠바의 시엔푸에고스에 정유공장 등을 2007년에 완공하였으며, 또한 브라질 페르남부쿠에 2011년 완공목표로 정유공장을 짓고 있다. 시엔푸에고스 정유공장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49%의 지분을, 페르남부쿠 정유공장의 경우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약간 낮추었다. 예를 들면, 2005년과 2006년에 대미석유수출은 8.2% 감소했다(Luhnow and Millard, 2007).

투자재원의 비선진국으로의, 특히 국영회사와, 다원화 정책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혜택을 주었다. 국영회사들은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전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합작한 자동차회사 베네라우토(Venirauto)의 주요 목표였다. 이 회사는 베네수엘라 국가가 49%, 이란의 준국영회사가 51%의 지분으로 마라카이에 설립되었으며, 이란 기술을 사용하여 2007년 227대의 차를 처음으로 생산하였다. 이 자동차의 실제 소매가격은 시장가격의 반 이하였으며, 구매자들은 국영은행 BANFOANDES로부터 유리한 대출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2009년 이 합작회사는 연간 5천대를 생산할 계획을 밝혔으며, 전국 10개의 판매망을 열었다. 2010년에 이 차의 부품으로 베네수엘라 국내 생산품을 35%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92%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선진국 이외의 국가로 투자와 기술이전의 다원화 정책은 공공운송 분야의 야심 찬 확장에도 나타났다. 2006년 카라카스에 세 가지 철도선이 완공되었다. 하나는 시내를 관통하는 지하철 선로이고, 다른 두 개는 지하철과 외곽 도시

로스 페게스와 꾸아를 각각 잇는 선이다. 같은 해 마라카이보(총연장 1.1Km와 두 개의 역)와 발렌시아(총연장 4.7Km와 7개의 역)에 처음으로 지하철이 운행되었다. 곧이어 메리다에 무궤도전차가 도입 운행되었고, 바르끼시메포에는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이러한 운송분야 프로젝트에 비선진국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 회사 오데브레흐트(Odebrecht)가 수개의 주요 운송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다: 카라카스 시내 새로운 지하철 선로, 기존의 지하철 연장선(에스페르 파크 역 외부로), 산아구시핀의 고지대 빈민가를 잇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 2006년 완공된 오리노코 강의 제2대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운송분야 사업들을 대부분 계획 또는 건설 중이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별로 크지는 않다. 예를 들면, 로스페게스와 꾸아 지하철은 다른 지하철 선로 공사로 인해 한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이 중지되다가, 지금은 낮 시간에 정상 운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 철도체계의 확장 계획은 우선순위에 밀려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의 증가로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철도 자체에 대한 구매력도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 철도 확장 사업은 답보상태이다.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여러 국책사업 추진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선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거 이후 새로운 국책사업의 발주가 급격히 줄었다.

차베스 대통령의 외국자본에 대한 수요는 이전 반세기에 걸쳐 적극적 정부간섭 정책을 추구하였던 어느 베네수엘라 정부들 보다 지대하다. 2007년 SIDOR의 국영화는 차베스 정부의 대담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당시 아르헨티나 자본이 주축이 된 합작기업 Terium이 SIDOR의 대주주였다. 동년 5월, 차베스는 SIDOR가 해외시장을 우선시하고 국내시장을 무시하여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부터 석유산업용 무솔기 강관을 수입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국유화를 막아보려고 SIDOR와 모기업 사장단이 기간산업 및 광업 장관과 경공업 장관을 만나 논의했다. 그 결과, SIDOR는 베네수엘라 내국인 수요자에게 할인가격으로 철강을 공급하고 또한 협동조합 관리 기업에는 추가로 2% 할인을 더 해주기로 합의했다. SIDOR는 또한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US\$5억을(US\$7천만 달러의 환경보전 투자를 포함)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Terium의 모기업 Techint가 무솔기 강관을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전대미문의 합의에는, 베네수엘라 기간산업 장관이 포함된 감독 위원회가 SIDOR내에 설치되어

합의내용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 해말 SIDOR는 자사제품 80%를 베네수엘라 국내시장에 공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합의는 이듬해 SIDOR의 국유화를 막지는 못했다. SIDOR는 노조와 집단계약에 실패로 격심한 노동 분규를 겪었다. SIDOR의 국유화에 앞서, 국영전화회사(Compañía Anónima Nacional de Teléfonos, CANTV)와 수개의 전기회사가 국유화되었다. SIDOR 국유화 이후, 세 개의 외국인 대주주의 시멘트 회사(이중 가장 큰 것은 멕시코 자본이 소유한 Cementos Mexicanos)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베네수엘라은행(Banco de Venezuela)도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여러 식품가공업체를 포함해 외국인이 소유한 크고 작은 기업들이 국유화되었다. 국가 전략산업의 국유화는 1930년대 민족주의 좌파 정당들이 처음 생긴 이후 줄곧 베네수엘라 주요 정당의 정치적 의제였다. 기간산업 국유화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까지 민주행동당(Acción Democrática, AD)과 기독교사회당(Comité de Organización Política Electoral Independiente, COPEI)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다.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 후보 이전부터 기간산업의 국가 관리를 주장하였지만, 2006년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기 전까지는 국유화 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루어 왔다.

2007년 초부터 차베스 정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중공업의 국유화를 이익창출이라는 관점 보다는 국가발전과 사회복지 관점에서 추진하였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초기 1, 2년간 다 같이 이익과 무관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랑했다. SIDOR는 1만여 명의 협력회사 직원을 종업원으로 전환하였다. 국영 시멘트 회사는 과거 국내 수요를 무시하고 생산의 50%를 해외에 수출하였던 문제를—SIDOR도 유사한 비난을 받았던 문제—개선했다. 그리고 CANTV는 82만의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10~15%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요금연대계획(tariff solidarity plan)”을 제공하였다.

국유산업의 목표와 관리에 대해서 차베스주의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사회우선전략론자들은 시장과 세계화 압력을 무시하고 국가개혁계획에서 밝힌 사회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실용정책결정 접근론자들은 비경제적 목표를 중시하지만, 효율과 생산 목표를 더 우선시했다. 후자는 전략적 산업에서, 즉 알루미늄 산업, 국영전기회사(CADAFE) 그리고 PDVSA 등에서 노동자 기업관리 제도의 적용도 의문시했다. UNT 노조주의자들과 같은 사회 우선론자들은 노동에 의한 기업관리제로 완전히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존의 관리자들 중에는 생산방해를 자행하는 반차베스주의자라고 경고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결점은 몇몇 핵심 부문의 생산을 자극하는데 실패하여 기록적인 고유가로 인해 생긴 수요 증대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2001년의 토지법을 통한 토지분배, 수천 개의 농업협동조합에다 까다롭지 않은 조건의 대출을 통해 장려한 창업 사업, 국영 식품 유통체인(MERCAL) 사업, MERCAL에 연결된 15,000 개의 소매 아울렛(대부분 주거지에서 가까운 소매점 “Bodegas Mercal”) 사업 등은 2002~2003년 총파업 시에 식량 부족 사태를 유도했던 식품회사들의 과점적 통제력을 해체하고자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 노력들은 2007년 주요 식품 부족 사태를 대폭 완화하는데 실패했다. 우유, 설탕, 고기, 오린지 주스의 부족 사태는 12월에 있었던 국민투표에서 정부가 패배하는데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다.

여전히 외국 수입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차베스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목표인 국가주권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석유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7년에 이르면 무역의존 문제는 극단을 치닫는다. 2007년 상반기에 전국적 수유는 전년도 동기에 비해 30%나 증가했지만, 산업생산은 겨우 7% 증가에 그쳤다(El Caribeño, July 28, 2007, p. C-14). 2008년 1월에 있었던 국회의 연두교서에서 차베스는 불충분한 국가 생산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족 사태는 국가의 경제계획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만성적 부족사태, 투자환경의 악화, 수요 증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국가 생산 능력의 부재는 곧 2007년에 22.5%, 2008년에 30.9%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자동차 수입의 폭증과 이에 따른 문제를 보면, 정부가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데 실패했음을 옹변으로 증명했다. 2007년 1월과 6월 사이에 자동차 판매는 전년도 동기 대비로 176%나 증가했는데, 생산은 겨우 5% 증가했다(El Universal, July 6, 2007, p. 1-14). 국내생산의 부족분을 벌충하기 위해 수입을 허용하였지만, 이런 경향은 국내에서 조립하는 모델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을 위축시켰다. 게다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요 급증을 감소시키는데 불충분했다. 자동차 구매 붐과 더불어, 여타 정부 정책들도 도시 교통 체증을 악화시켰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 당 15 센트로 낮았다. 정부가 장려한 자동차, Venemovil(2007년 시장 점유율이 18%였다)이란 국민차에는 9~14%의 부가가

치세를 면제시켜 주었다. 정부는 고급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패했다(차베스가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반에 차베스는 이미 선언한 바 있었던 휘발유 가격 인상안을 철회했다.

전반적으로 수입은 증가했고, 국내 생산의 증가분은 구매력 증가에 크게 미달했다. 생산량의 미미한 증가도 민간부문의 투자 때문이 아니라, 주로 유희설비의 가동에 기인했다. 2008년 경제의 가동률은 90%에 달했는데, 4년 전의 60%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Panorama, January 14, 2008).

분석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은 왜 생필품이 부족하고 내외 자본이 투자를 기피하는지 여러 갈래 설명을 내놓았다. 어떤 설명에 따르면, 문제는 글로벌화 경제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있었다. 국가별로 경제적 자유를 평가하는 2006년도 세계자유지수(World Liberty Index)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지위는 135위에서 141위로 하락했다.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노사, 신용, 가격에 대한 국가의 규제였다(Economía, September 4, 2007 p. 1-12). 정부가 2002~2003년의 총파업 당시에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진정하기 위해 실시한 가격통제 정책 가운데 몇 가지는 2007년 초에 해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정책도 생산비용 증가에 부합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보호원은 규제가격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수백 개의 유통업소에다 일시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Ordoñez, 2007). 차베스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급 불일치를 적대적으로 느끼는 정부에 대해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수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차베스의 발언이 문제라는 것이다(Rosenberg, 2007). 기업인 조직인 베네수엘라 상공회의소(VenAmCham)의 회장 까를로스 페헤라 빠리스는 이런 사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자본은 겁이 많아요”(El Universal, September 7, 2007, p. 1-12).

2008년에 정부는 긴급한 품목이 아닌 수입품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특혜달러(낮은 환율에 파는)의 많은 부분이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할당되었고, 대신에 자동차와 기타 비우선 품목은 희생되었다. 2008년 중반에 정부는 베네모빌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생산의 증가보다는 무역관계와 투자의 다각화가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컸다.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PDVSA의 전략도 생산 겹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2007년 석유 채굴의 지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PDVSA는 ‘PDVSA 산업’과 ‘PDVSA 서비스’를 설립하고, 석유산업의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게 했다. PDVSA 산업은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드릴을 조립하기 위해 오리노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다변화 과정의 일환으로 PAVSA는 중국에서 드릴을 수입하고, 나중에 PDVSA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이 전략은 급등한 석유수입으로 인해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이 느리게나마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 사회적 부문

차베스 통치 아래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띠는 정책은 여러 가지이다. 국가 세수를 책임지는 국세청(SENIAT)은 소득세를 엄격하게 징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줄였으며, 정부는 사회적 지출을 우선하였다(Parker, 2007: 68-69). 1958년에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정부는 경제정책에 관련된 핵심 보직에 기업인 대표를 지명하지 않았다. 비록 이런 조치들이 비특권층을 우대하고 특권층을 홀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충분한 석유수입으로 인해 차베스 대통령은 인구의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더 과감한 부의 이전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C, 2007)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빈곤율과 극빈율은 각각 18.4%, 12.3%나 하락하였다. 대륙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빨리 하락한 사례이다.⁵⁾ 이와 동시에 2007년에 자동차 판매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신형 SUV 자동차들이 중산층 주거지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부유층의 구매력도 개선되었다는 증거로 보면 된다.

차베스 통치 아래 이러한 주된 성과 가운데 몇몇은 질보다는 양에 신경을 쓴 거래(trade-offs)가 엿보인다. 이 전략은 차베스주의의 근본적인 목표로서, 과거 배제되었던 인구 부문을 포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거래에서 패배자는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아니다.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교육 ‘미시온’ 사업들이다. 문맹퇴치 사업, 고등학교 프로그램(미시온 리바스), 대학 프로그램(미시온 수프레) 등이 바로

5) 이 숫자와 여러 통계는 차베스 정부 아래 이뤄진 순사회적 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많다. 특히, 빈민에게 제공된 보건 및 식량 보급과 같은 분야에서 공짜 내지 할인된 가격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Weisbrot, 2008: 39).

그것이다. 2008년 미시온 리바스 사업에 따라 45만 명의 학생이 졸업했다. 교사를 대신한 비디오카세트와 ‘학습촉진자(facilitators)’를 이용한 것은 교육현장의 혁신사례임에 틀림없지만, 당연히 정규학교의 학습 질에는 못 미친다. 그래서 미시온 리바스는 대학 졸업생을 고용하였고, 이들을 애초에 계획한 대로 학습촉진자로 이용하지 않고, 주로 감독(supervisors)으로 활용하였다(학습촉진자의 경우, 대학에 적을 두게끔 강제하였다). 고등교육부 산하에 있는 몇몇 대학들이 미시온 수끄레에서 감독 역할을 맡았고, 그 대학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학 졸업장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전통 대학의 졸업생들이었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미시온 출신 대학졸업자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다. 또한, 미시온 수끄레와 볼리바르대학교(Universidad Bolivariana)에 학생을 빼앗긴 사립대학들이었다.⁶⁾ 몇몇 야당 출신들은 미시온 학위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미시온의 학업 기준이 낮기 때문에 전통 대학교의 학위와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특히 쿠바 의사들의 지도 아래에 있는 학부와 대학원의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비판한다. 하지만 미시온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bachillerato)과 학사학위(licenciatura)를 주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중학교 졸업자(técnico superior universitario)는 노동시장에서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린다.⁷⁾

학비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또는 학사 학위를 얻을 기회 때문에 미시온 리바스와 미시온 수끄레 등록자들이 몰리듯이, 마을(neighborhood)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지원금 때문에 2006년을 기점으로 공동체위원회가 가시화되었다. 이 위원회는 개별 공동체에 필요한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 협동조합과

-
- 6) 기존 대학들의 이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친차베스주의 학생운동은 모든 고등교육 기관이 미시온 리바스 졸업생들에게 입학의 우선권을 부여하길 요구하고 있다.
- 7) 차베스 정부는 연구자승급 프로그램(PPI)을 통해 대학교수의 연구업적에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급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것도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1990년대 첫 10년 동안 PPI는 너무 엘리트주의적이며 과도하게 경쟁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차베스 정부 아래서 이 조건은 완화되었고, 베네수엘라 학술지에 기고하면 가산점을 주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 교수들의 숫자가 세 배나 증가했다. 이런 경우의 “패배자”는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이다. 이들은 덜 생산적인 교수들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권위가 떨어졌고, 수준급 연구자들에게 할당될 보상이 줄었다고 불평한다.

달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그냥 “대변자(voceros)”로 불린다.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양하다. 참여 및 사회보호 부처, 정부간분권화 기금(FIDES), 지방정부, 국영은행 등이 공동체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지원한다(2007년 국민투표에서 거부되었던 헌법 개정 조항 69개 가운데 하나가 연방의 일반예산 가운데 5%를 공동체위원회에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까지 거금이 공동체 센터, 도로, 보도, 가족 주거지를 건설하는데 투입되었다. 위원회는 소규모 지역기업인에게, 공동체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대출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처음부터 국가통제가 더욱 엄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위원회는 정부의 제도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많이 남용하였다. 하지만 잘 착근한 위원회는 좋은 결과를 산출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낸 공동체위원회들은, 그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얻는데 필요한 재정적 의무사항을 기꺼이 준수하여 왔다.

공동체위원회가 주도하였던 다양한 활동을 검토해 볼 때, 앞으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사회적 감사” 위원회가 공동체위원회법(위원회의 역할을 “감시, 통제 그리고 감사”로 정했다) 제11조에 따라 공공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사회적 감사는 공동체 프로젝트의 재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파견한 감사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전국계약자등기소에 민원을 제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체위원회는 고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 내에서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마을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Leandro Rodríguez, interview, Caracas, January 24, 2008).

일련의 정부 주도 사업들이 공동체위원회를 국영기관과 프로그램들에 연계시켰다. 미시온 수끄레의 사회과학 분야에 등록된 대학생들은 “프로젝트”란 과목을 이수하는데, 이들은 공동체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재정지원기관이 심의할 제안서를 작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공동체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소비자 보호기구와 더불어 유통기구들이 규제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감시한다. 규제가격 이상을 받는 가게들을 24~48시간 동안 일시 폐쇄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ANTV는 공동체위원회의 대변자들에게 월별 요금을 할인해준다.

차베스주의 평당원들은 일부 차베스주의 지도자들 중에 후원-수혜 관계,

부패, 과도한 라이프스타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공부문에도 또 다른 치부가 보인다. 2004년에 대통령 소환에 찬성하는 서명자 명단이 “따스콘 리스트”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몇몇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노동부장관 마리아 크리스띠나 이글레시아스, PDVSA 사장 알리 로드리게스)이나 차베스 자신은 공공부문에서 서명자들에 대해 차별하지 말도록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말이 많던 보건부장관 로헤르 까빠야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NASA에서 누가 부시 행정부에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자신이 행정부에 반대하는 음모에 참가했다고 선언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가 계속 NASA에 남아 있으리라 상상할 수 있겠는가”(El Universal, November 17, 2004).

하지만 정부의 중심적인 사회 프로그램은 집합적 대상을 다루고 있기에 후원-수혜 관계나 가부장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예컨대, 사회보장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애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handout)”의 대척점에 서 있다.⁸⁾ 차베스 정부는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최저임금(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다)과 연동시켰다. 이 연동제는 라파엘 깔데라의 전임정부가 법제화한 것인데,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연동제를 가로막는 각종 방해물이 제거되었고, 연금 지급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정부는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두 달의 연금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제안한 연금운동의 아이디어도 수용했다. 2007년에 연금 수혜자 숫자는 22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기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1998년 대상자 숫자의 세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Arturo Tremont, interview, Caracas, December 4, 2007). 2007년 12월 선거에서 패배했던 헌법 개정안에 비공식 경제 종사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사회보장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 있었다.

사회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도, 차베스주의 운동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도 다양한 조류가 있고, 각자 독특한 잣대를 평가한다. 주변화되거나 반주변화된 인구를 통합시키려는 차베스주의의 목표(사회우선전략이 강조한다)에서 보면, 협동조합이나 공동체위원회 그리고 교육 미시온 프로그램은 명백히 성공작이다. 교육 기회와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은 수십만

8) 직접적 소득이전은 (2006년 대선에 야당후보였던) 마누엘 로살레스의 선거공약에서 중심 테마였는데, 그는 국가의 석유 수입의 20%를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했다.

명의 비특권층 인구는 능력 제고의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다. 전국의 공동체위원회가 추진했던 수많은 공공사업 프로젝트는 만족스럽게 완결되었다. 게다가 수십만 명의 학생들도 이제 미시온 프로그램에서 졸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비용-수익 시각에서 보면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 자본, 경험 기술적 노하우가 많은 대규모 계약자들이 아무래도 공동체위원회나 협동조합보다 단기적인 성과에서 뛰어날 것이다(ElIner, 2009).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이뤄질 것이다. 공동체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통계를 통해 그들 가운데 몇 개가 잘 굴러가는지 보여줄 때, 그리고 미시온 프로그램의 졸업자들이 노동시장과 작업장에서 얼마나 잘 대접을 받는지 알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IV. 결 론

20세기 “실재의 사회주의” 정부를 대상으로 주요 부문별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보면, 차베스 정부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917년 이후 실재의 사회주의에 있어 사회주의 경험의 객관적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적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던 반면에, 소비재 생산을 자극하지 못했던 부분은 주된 약점으로 남았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사회주의를 악마시하거나, 아니면 미화하는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험도 사회적, 경제적 부문에서 이런 역사적 경향과 일치한다.⁹⁾

이 논문은 차베스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올린 구체적 성과를 지적하였다. 과거에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수많은 주변인들을 동원하고 통합한 점, 무역과 기술도입의 다변화를 달성한 점, 경제 영역에서 국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한 점은 성과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규모 석유 수입에도 불구하고

9) 사회주의 체제의 실적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은 구질서를 복구하려는 강력한 행위자들의 공격적 행태로 인해 사회주의 정부의 에너지와 자원이 줄줄 샌다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혁명가들이 진술하거나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약점과 실패는 반대세력의 소모전이나 파괴 캠페인에다 귀속시킬 수는 없다. 사회주의 정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력을 유지한 경우는 특히 그럴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를 대체하여 대통령이 된 라울 카스트로는 쿠바에 관해 바로 이런 부분의 유의미성을 인정했다.

생산을 제대로 증대시키는데 실패한 점, 산업화의 속도가 느린 점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변화 실험을 편협하게 평가하는 것을, 즉 차베스와 차베스주의를 단순히 악마로 평가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를 통한 종합적 분석에서 보면, 지대추구 명제도 베네수엘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대추구론은 베네수엘라가 석유의존국가로서 특성을 오랫동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차베스 정부의 개혁은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지위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차베스 통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특징들을 평가할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래서 패러다임의 경계를 넘을 것을 주문했다. 첫째, 상이한 모델은 상이한 목적을 추구한다. 차베스 비판자들의 사고에 깔려 있는 자유민주주의 틀은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는다. 하지만 급진민주주의를 수용하는 차베스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한다. 견제는 베네수엘라에서 부패를 극복하는 불가결한 메커니즘으로, 일반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된다. 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또 다른 경우는 차베스주의 운동 내부의 두 조류, 즉 사회우선전략파와 실용정책 결정접근파의 차이이다. 전자는 전략산업의 국영화가 사회적 목표와 발전에 일차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 반면, 후자는 생산 목표와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사회우선전략파는 베네수엘라의 세계시장 편입을 대체로 거부하는 반면에, 카리브석유공동체 프로그램을 국제적 연대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한다. 실용정책결정접근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무역 전략이라고 믿는다.

둘째, 정부정책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특권층 인구 부문 내에서도 상당히 차별적인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 사실은 차베스주의나 반차베스주의 정치실천가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차베스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정부의 정책이 ‘승자’와 ‘패자’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고, 이 패자가 모두 엘리트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차베스주의자들은 정부의 사회 프로그램이 비특권층을 국민 생활에 통합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작이라고 홍보하면서 ‘패자’를 그냥 무시해버린다. 예컨대, 기존 대학의 학생들은 직업시장에서 미시온 수끄레 졸업생들과 경쟁해야만 한다. 두 프로그램의 교육 기준의 차이가 대단히 큰데도 말이다. 차베스주의자들은 이런 불일치

를 간과하고는, 많은 숫자의 반차베스주의 학생들의 동원을 야당이 통제하는 미디어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치부한다. 그래서 미시온 프로그램들이 기존 교육 시스템의 이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을 보다 넓은 틀에서 분석해서 비엘리트 그룹 속의 ‘패배자’에 미친 충격을 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는 차베스주의자들이 수사와 도그마를 넘어서 공식적 토론을 활성화하여 복잡하고 뒤얽힌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안해야만 한다는 점을 뜻한다. 2007년 전국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안이 부결된 이래 차베스 자신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자기비판은 지지 그룹 내의 비공식 토론의 범주를 넘어 공식화되었다. 친차베스주의 인터넷 일간지인 *Aporrea.org*는 지면에 운동 내부의 비판적 견해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을 담아냈다(Hellinger, 2009). 2009년 6월의 친차베스 지식인 그룹이 좌파 싱크탱크인 미란다국제센터(*Centro Internacional Miranda: 차베스주의 운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의 후원 아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논란거리였던 집단지도체제와 혁명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외무부장관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 문서를 “헛소리”라고 일축했고, 차베스는 자기비판에 충실하다고 반복하며 이에 대응했다. 차베스는 이런 종류의 내부 의견차이가 곧 반차베스 미디어에게 이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논문은, 차베스 정부의 상대적 성공과 약점을 담은 대차대조표를 통해, 현 단계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복합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차베스주의자들이 내세운 “21세기 사회주의” 모델을 평가하는데 있어, 모든 정치적 진영은 교조적이고 단선적 설명을 하고 있을 뿐 그 복잡성을 간과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추진 과정에 시행착오 접근을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1세기 사회주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도전과 실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석틀로는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21세기 사회주의”는 과거에 있었던 사회주의 논쟁이나 차베스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에 나타난 선입견과 단순화를 넘어서 폭넓게 보아야 할 반명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Bowman, Betsy and Bob Stone (2006), “Venezuela’s cooperative revolution,” *Dollars and Sense*, July-August, 16-23.
- Castañeda, Jorge G. and Marco A. Morales(eds.) (2008), *Leftovers: Tales of the Latin American Left*, New York: Routledge.
- Coronil, Fernando (2008), “Chávez’s Venezuela: a new magical state?” *ReVista: Harvard Review of Latin America* 8: 3-4.
-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7),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Santiago.
- Ellner, Steve (2007), “The trial (and errors) of Hugo Chávez,” *In These Times*, September, 25-27.
- _____ (2008), *Rethinking Venezuelan Politics: Class, Conflict, and the Chávez Phenomenon*, Boulder: Lynne Rienner.
- _____ (2009), “A new model with rough edges: Venezuela’s community council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May-June.
- _____ n.d, “The rightward drift of a Latin American social democrat,” *Science & Society*, Inpress.
- Frontline (2008), “The Hugo Chávez show,”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hugochavez/> [1]. [1].
- García Guadilla, María Pilar (2003), “Civil society: institutionalization, fragmentation, autonomy,” pp. 179-196 in Steve Ellner and Daniel Hellinger (eds.), *Venezuelan Politics in the Chávez Era: Class, Polarization, and Conflict*, Boulder: Lynne Rienner.
- Hellinger, Daniel (2009), “Virtu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virtue: Chavistas on the Internet in Venezuela,” Paper presented at the 28th Congress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Rio de Janeiro, Brazil.
- Kelly, Janet and Pedro A. Palma (2004), “The syndrome of economic decline and the quest for change,” pp. 202-230 in Jennifer L. McCoy and David J. Myers(eds.), *The Unravel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Venezuel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ombardi, John (2003), "Prologue: Venezuela's permanent dilemma," pp. 7-26 in Steve Ellner and Daniel Hellinger(eds.), *Venezuelan Politics in the Chávez Era: Class, Polarization, and Conflict*, Boulder: Lynne Rienner.
- López Maya, Margarita (2007), "Innovaciones participativas y poder popular en Venezuela," *SIC* (December): 448-451.
- _____ (2008), "After the referendum: reading the defeat," *ReVista: Harvard Review of Latin America* 8: 5-7.
- Luhnow, David and Peter Millard (2007), "How Chávez aims to weaken U.S." *Wall Street Journal*, May 1.
- Márquez, Trino (2007), "Partido y pluralidad," pp. 83-94 in Gregorio Castro (ed.), *Debate por Venezuela*, Caracas: EditorialAlfa.
- Ordoñez, Jorge (2007), "Situación de la carne del mercado en Venezuela, 2007," *SIC* (September-October): 347-350.
- Parker, Dick (2007), "Chávez and the search for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pp. 60-74 in Steve Ellner and Miguel Tinker Salas (eds.), *Venezuela: Hugo Chávez and the Decline of an "Exceptional" Democrac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Piñeiro Harnecker, Camila (2007), "Workplace democracy and collective consciousness: an empirical study of Venezuelan cooperatives," *Monthly Review* 59(6): 27-40.
- _____ (2009), "Workplace democracy and social consciousness: Venezuelan cooperatives," *Science & Society* 73: 309-339.
- Rosenberg, Tina (2007), "The perils of petrocracy," *New York Times Magazine*, November 4.
- Santiso, Javier (2006),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of the Possible: Beyond Good Revolutionaries and Free-Marketeers*, Cambridge, MA: MIT Press.
- Weisbrot, Mark (2008), "Poverty reduction in Venezuela: a reality-based view," *ReVista: Harvard Review of Latin America* 8(1): 36-39.